

새로운 봄 기약하며 쓰러진 제주 유채꽃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녹산로 유채꽃밭 조기 파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상춘객도 줄이며 파쇄 결정

동이 뜬 지 얼마 안 된 지난 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녹산로.

이른 아침 시골 마을의 고요함을 깨고 달달거리는 트랙터 소음이 끊이지 이어졌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마다 노란 빛을 내며 화사하게 피어있던 유채꽃들이 쓰러져 차곡차곡 낫더미를 이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끊이지 않는 상춘객들을 막을 마지막 수는 꽃밭을 없애는 일이었다.

서귀포시는 지난 7일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

치에 발맞춰 녹산로 일대의 유채꽃을 조기파쇄하기로 결정, 이날 제거작업에 돌입했다.

파쇄작업은 차량통행과 안전을 고려해 인적이 드문 오전 6시부터 시작했다.

제주유채꽃축제가 진행되는 유채꽃광장의 규모만 9.5ha(95000㎡). 상암 월드컵경기장 축구장(9292㎡)의 10배가 넘는 크기다.

이에 더해 10km에 이르는 길가를 따라 식재돼 있는 유채꽃 역시 모두 파쇄대상이다보니 트랙터 4대를 동원한 파쇄 시간만 10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작업을 시작하고 3시간 여가 지

나자 길가에 뻗듯하게 솟아있던 유채꽃들은 거의 정리돼 행한 풍경만 남았다.

도로 파쇄가 끝난 후엔 3만평에 이르는 광장 내 유채꽃 제거 작업이 시작했다. 트랙터 4대가 줄이어 움직이자 순식간에 광장 한복판이 황량한 풀밭으로 변했다.

파쇄 소식을 듣지 못하고 봄을 즐기러 온 상춘객들은 남은 유채꽃을 연신 카메라에 담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녹산로 유채꽃 파쇄는 광장 복원을 위해 매년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 해오던 일이지만, 시들지 않은 생생한 꽃들을 갈아엎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가시리마을회는 벚꽃과 유채꽃이 만개하며 물려드는 상춘객들에 의한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우려해 서귀포시에 유채꽃 조기 파쇄를 건의했다.

하지만 녹산로 유채꽃밭은 서귀포시를 넘어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이른 파쇄를 두고 마을회와 시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특히 서귀포시는 유채꽃 개화에 맞춰 관람객 안전을 위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방역 작업을 벌여왔지만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파쇄 현장을 찾은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가시리 마을에 노인분들이 많아 코로나19 우려가 컸고, 거리두기 방침이 2주간 연기되며 이렇게 파쇄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광장에는 코스모스를 파종



해 가을 꽃 축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간 16만명이 찾는 제주 유채꽃축제가 열리는 가시리 녹산로는 만개한 벚꽃과 유채꽃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봄이면 상춘객

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10km에 걸친 도로는 제주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유나 기자

시흥 등 5개시군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VR 레저스포츠 체험시설’ 등 조성

경기도가 도내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흥, 의왕, 연천, 안산, 양평 등 5개 시·군에 10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레저스포츠 발굴과 관광 상품화를 통한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이들 5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시·군의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은 시설형 레저스포츠 거점

개발과 프로그램형 레저스포츠 육성으로 나뉘 추진된다.

시설형 레저스포츠 거점개발 사업은 △시흥시 ‘VR 레저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 △의왕시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으로 각 4억원, 5억원의 도비가 지원된다.

프로그램형 레저스포츠 육성사업은 △연천군 ‘연천 유네스코 카약터어 활성화 사업’ △안산시 ‘대부도 재즈페스티벌’ △양평군 ‘양평 Hill-Clime 전국 왕중왕전 MTB대회’ 등으로 각 5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오는 6월 중

공예정인 어린이체육관에 8억원을 들여 VR 레저스포츠 체험시설을 설치한다.

개발형 놀이공간, VR레저스포츠시설(복슬레이, 패러글라이딩, 윈드서핑 등)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아동의 놀이, 교육, 휴식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의왕시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왕송호수 레슬레파크에 기존 스카이라일(짚라인)과 연계해 목재, 와이어, 로프 등으로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레저스포츠 ‘에코어드벤처’를 조성한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상 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임진강을 따라 내려오는 최상의 카약 코스에 접안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산시는 대부도에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존 및 재즈공연, 열기구, 관광마차, 사륜모터바이크 등을 설치,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양평군은 레저스포츠 MTB동호인 한마당 축제인 ‘양평 Hill-Clime 전국 왕중왕전 MTB대회’를 개최하고, 자전거 코스 및 안내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레저스포츠와 관광서비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개발하면 더욱 더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제고

지금까지 미비했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절차가 신설됐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난 8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3년 처음 도입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운용 경과를 검토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지침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미비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절차가 신설됐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도 재정립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 해제가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도 재정립됐다. 이로써 더욱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전국 2만62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부안군, 구내식당서 지역농특산물 ‘메밀국수’ 소비촉진 행사

전북 부안군은 지난 8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권익현 군수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농식품 기업이 생산한 메밀국수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농산물로 만든 식품을 지역민에게 홍보해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부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메밀은 전량 수매돼 메밀가공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타 지역 업소용(대용량)으로 납품되고 있다.

오유나 기자

생진원, 농식품 기업

5개사 지원사업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창업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생진원은 창업 신규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확보, 판로 확대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사업을 시행할 최종 5개 농식품 창업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창업기업인 ‘향토자원연구소’와 성원PCM, ㈜담음, (유)소담식품, 우리푸드스 등 5개 창업기업이다.

생진원은 창업 사업화의 단계별로 기술이전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상품화 디자인지원, 사업화 성장 단계로 홍보지원으로 각 단계별 기업 수요에 맞춘 패키지 지원한다.

김윤호 기자



롯데백 대구점, 대구지역 간호사 힘내라 키트 선물 8일 오전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백화점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대구지역 7500여명의 간호사에게 전달할 ‘힘내라 키트’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싸우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 우울감 해소 등에 효과적인 천연성분 함유 초콜릿과 홍삼 스틱, 비타민 등으로 구성된 선물 7500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파평산단 국토부 심의 통과...2022년 조성

경기 파주시는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계획 중인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파평산단은 앞서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안전은 조건부 가결돼 지난 7일 최종 통보받았다.



성장관리권역에 30만㎡ 이상의 공업 용지를 조성 시 수도권 정비 및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며,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이행이 필요했던 절차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둔 파평일반산업단지는 59만3325㎡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 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파주 북부 파평면 지역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경기농기원, 다육식물 신제품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다육식물 중 인기가 많은 세덤과 세데베리아의 신제품 ‘딥퍼피’(Deep Puppy)와 ‘그린퍼피’(Green Puppy)를 개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다육식물(多肉植物)은 줄기나 잎에 수분이 많고, 저수조성이 발달해 두꺼운 육질을 이루고 있는 식물로, 식물분류학상 약 1만 종 이상 분포하고 있다.

이 중 돌나물과에 속하는 세덤(Sedum)은 소형의 다년생 다육식물로 라틴어 ‘sedeo(앉다)’에서 유래했다.

세계적으로 북반구의 열대와 온대지역에 400여종 이상이 분포하며 국내에는 돌나물, 기린초, 꿩의비름 등을 포함한 18여종이 자생하고 있다.

세덤속 식물은 직립형, 로제트(Rosette)형, 늘어지는 형 등이 있으며, 원형과 길고 뾰족한 모양 등의 잎의 형태가 다양하다.

또 재배가 쉬워 분화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육식물 수 백 여종 중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덤류는 건조하거나 추운 환경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벽면 녹화, 옥상녹화 등 조경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내 유일의 다육식물 육종연구 기관인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작



목개발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세덤 신제품 육성연구를 수행해 현재까지 ‘딥퍼피’ 등 5품종을 개발했다.

올해 새로 선보이는 신제품 ‘딥퍼피’는 직립형으로 자라며, 잎의 색은 적갈색, 잎 가장자리는 전체적으로 적색을 띠어 관상 가치가 우수한 식물이다.

무늬색은 햇빛을 많이 받고 일교차가 적당한 봄, 가을철에 더욱 짙게 물들어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다육식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다.

‘그린퍼피’는 세덤속 식물과 에케베리아속 식물의 교배종인 세데베리아로 황녹색 잎이 분홍색으로 물들고, 줄기에 잎이 밀집돼 직립형으로 자란다.

또 분지수와 잎이 많아 번식이 쉬워 재배능가와 소비자에게 모두 인기 있는 품종으로 올해부터 보급 예정이다.

원선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다양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